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댓글, 그 평범하고 못한 것

대부분 보이지 않는 '댓글'은 새로운 뒷이야기나 '내 자보', '헛담'으로 상처를 남기기 일쑤다. 최근에는 '악성 댓글'이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나만 아니면 그만이지!',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로 웃어 넘기기에선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한 쪽에는 '친구가', '동료가', '이웃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에 배가 아파하는 증례함이 있다.



박 여 범

웅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카페나 카페지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광고성 글 올리지 말아주세요. 즉시 게시글 삭제와 강제퇴장 그리고 법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글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네이버 카페 000네 집 공지사항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문장이다.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여 즐거운 인터넷 문화에 대한 경고이자 홍보성 글이다. 이러한 문화는 비단 인터넷에 국한하지 않는다. '114 안내'나 각종 '설문 조사', '보험 계약'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화 내용의 동시 '녹취'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여자 연예인은 인터넷 댓글이 가져온 정신적 피해함으로써 세상을 달리한 불행한 일이 우리를 슬프게 하였다. 놀라운 것은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기겁할 수 밖에 없었다. 정말 상상 밖의 댓글 향연에 당황스러웠다. '아, 이래서.....'가 탄식처럼 튀어 나왔다. 하나의 댓글이 올라오면, 기다렸다

는 뜻이 '히히 호호', '그럼 그렇지' 등 비상식적인 내용과 욕설이 도배된다. 그래서 댓글의 위력은 짧은 시간, 어느 특정한(정치인, 연예인 등)을 '무장해제'시킨다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고인에 대한 명복은커녕 비아냥 거리는 '투'의 댓글을 비롯해 근거 없는 다양한 악성 글들을 읽어 내려가는 독자도 섬뜩하다. '읽지 말아야지', '신경을 끊어야지', '인터넷이냐 스마트폰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정신을 차려보면 댓글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슬프다.

이것이 댓글의 현실이다. 물론 비판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비판만이 이 시대를 더불어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공중에 띄워두고 많은 사람이 공포하기를 바라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낯선 댓글이 얼마나 압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고 현실을 타파하는 방법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다.

회려한 의상 달콤한 커피 한 잔처럼 넘쳐나는 무대 위 사선을 사로잡은 가상현실 무대 여배우

손끝에서 달려오는 미세한 떨림은 숨소리 하나에 시달린 두 눈은 객석 의자에 어깨춤 들썩이고 살포시 내디딘 발걸음에 사르르

무너지는 대본에 침이뚫린 들숨 날숨 전쟁 한판 똑딱 걸판지니 연극이 끝난 막걸리 배우 이름 모를 어떤 놀이 휘갈겨 쓴 노래처럼 타디타 자판 소리만 가득하다. -시인 박여범 '연극이 끝나고' -

관객은 화려한 무대 위의 달콤한 커피 한 잔 같은 여배우의 움직임에 숨을 죽이고 어깨를 들썩인다. 배우는 열정을 다한 연극이 끝나고 난 후, 막걸리 한 잔에 허전함을 달래준다. 그런데도, 컵잔에 울려 퍼지는 자판 소리는 연극에 대한 각양각색의 댓글이라는 이름의 평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댓글의 출발점은 상대방에 대한 예절에서 출발한다. 그중에서도 '같이 가자', '더불어 나누며 살자'라는 말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현실은 동로이식보다는 개인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전쟁 같은 사회다. 댓글을 통해 보이는 민낯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공감하는 동지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결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으로 자기만족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하나둘, 집단을 구성하면 상황은 정반대로

달라진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어이없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가상 세계에서 터져 나오는 개인의 예너지는 상상 그 이상이다. 감춰진 예너지의 비생산적인 분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함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조심스럽게 '뭇안 평범함으로 같이 가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것 중 하나가 '인터넷 댓글 문화'가 아닐까? 아무리 '실명제를 도입'하고 '필터링'을 거처도 마음만 먹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감추고 음흉하게 상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인터넷 문화다. '아이피 추적을 통한 가해자'를 찾아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려 하면, 이미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네티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면'을 쓰고 작성한 '댓글'이 누군가에 의해 나에게 돌아올 '부메랑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쉽게 자신과는 무관한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악성 댓글'이나 '욕설'을 '배설'하는 것은 비판적이지 않다. 한 발 뒤로 물러서보자. '댓글'을 작성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의사 표현을 읽어 보자.

못난 평범함으로 함께 가야 한다. 선량한 웃음으로 위정하지 말자. 당당하게 나서자. '거짓 정보'나 '악성 댓글'이 아닌 진정 서로를 '배려'하는 댓글 문화'를 만들어 가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댓글을 작성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자. 어깨를 쭉 펴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노라'고 하는 번 울려다보는 여유를 가지자. '나'의 작은 변화가 '너'와 또 다른 '너+너+너+너+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기초적인 질서에 충실하자.

사설

환경 피해 규명 시급한 익산 장점마을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환경 피해 규명이 여전히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마을의 주민 80명 가운데 30명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기 때문이다. 원인을 못 찾으면 과거 영화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다. 비료공장 가동과 주민 집단 암 발병에는 분명히 인과 관계가 있다. 환경부의 명확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1년 공장 가동 이후 16년 동안 주민들의 거듭된 악취 민원 호소에도 제대로 된 행정 조치가 없었다. 그러다가 3년 전 언론 보도 이후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였던 셈이다. 인과 관계가 명확히 확인돼야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

마을 주민 2명(부부)이 또 다시 암에 걸린 사실이 확인돼 암환자가 32명으로 늘었다. 인근 2개 마을에서도 10명가량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문제의 비료공장에서도 직원 5명이 암에 걸린 것까지 합하면 60명에 가깝다.

주민 암 발생은 전국 표준화 암 발생 대비 22배가 넘고 공장 직원 암 발생도 익산지역 근로자 표준화 대비 11배에 이른다.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미 원인이 확인됐고 주민과 공장 직원의 암 발병에서 보듯이 결과도 나와 있다.

대기 확산 모델링 결과 대기포 배출돼서 주민에게 영향을 줬다는 도달 경로도 분석이 됐다. 그런데도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연성 추정만 갖고서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기금으로 주민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2의 장점마을 유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장점마을 문제를 한 마을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 정부나 지자체 관리 기준은 이미 오래된 옛날 기준이다.

새로운 발암 물질이 법적 규제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팔짱만 끼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 환경부의 명확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노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환경 기준을 정립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례시는 물론 특례군으로 지정해 달라는 자치단체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특례시는 물론 특례군까지 요구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도 최종 지역을 선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로 돼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목적은 교통이나 지역개발 같은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단체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의 핵심 단위다. 1963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직할시란 명칭으로 도에서 독립해와 같은 위상의 도시들이 탄생했다. 이는 1994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5개 직할시는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됐다.

광역시 승격의 기준이 되는 인구 100만 기준의 광역시는 1997년 울산광역시를 마지막으로 이후

더 승격되지 않았다. 광역시의 존재는 기존 도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 등을 가져오면서 광역도 안의 지역 불균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후 광역시의 승격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요구되는 행정의 수요가 다르기에 차별화된 제도가 필요했다. 결국 2018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추가 특례 확대를 추진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단순한 인구 100만 기준에 의한 특례시의 지정 여부 결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 수요는 단순한 주민등록상의 인구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실제 행정 수요를 반영한 주간 인구와 사업체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인구만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단체다. 광역시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 광역도의 경우 제도의 차별화를 통해 특례시 제도 도입을 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 특례를 도입했다. 획일적인 제도로는 지역 특색을 살리고 각 지자체에 적합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전주시는 물론 정부가 특례시 지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국 가수 크리스 브라운, 자택서 '마당 세일' 진행



가수 크리스 브라운이 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타저너의 자택에서 '마당 세일'을 해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집 주변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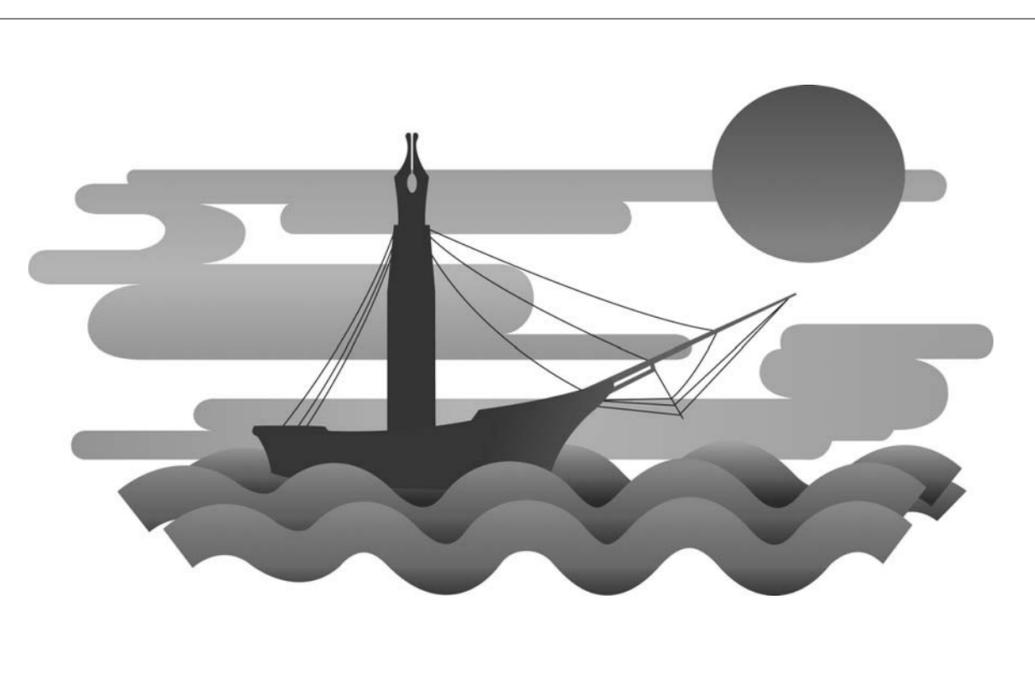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